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9면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 성료	1
江原日報	03면	“강원의정 화이팅”	1
江原日報	03면	“함께 달린 도의원·사무처 ... 의회 발전 원동력”	1
강원도민일보	26면	도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화합의 장'	2
매일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2
江原日報	11면	성공적인 첫 선 ... 인파에 만두 동나	3
강원도민일보	08면	원주 만두축제 '꼭 찬 재미' 15만명 방문 흥행	3
강원도민일보	01면	지방시대 강원으로부터	4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자도 내실있는 법제화 중요"	4
강원도민일보	16면	'지방시대 전략 수립' 지방정부·의회 공동대응 다짐	5
강원도민일보	17면	"지자체간 연합 유도, 사회적 편익비용 높여야"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도시·농촌 아우른 강원형 주민자치모델 있어야"	6
강원도민일보	03면	오늘 특자도·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	7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예결특위 오늘 2024 예산안 설명회	7
매일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	8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민 주도당 오늘 총선 대비 연석회의	9
江原日報	23면	강원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 성료	9
江原日報	14면	삼척 인의예지림 준공식	10
강원도민일보	09면	홍제동민 건강걷기대회	10
江原日報	14면	동해 백두대간 산삼심기 성황	10
강원도민일보	12면	산사랑 홍천사랑 등산대회 남산서 주민 화합	11
江原日報	21면	“불안정한 국제정세 딛고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	11
江原日報	01면	'시니어산업 1번지' 성장 가능성 입증한 강원자치도	12
江原日報	10면	홍천농업고 총동창회 회기별 체육대회 개최	12
강원신문	온라인	강릉시 교1동 주민자치회 '제3회 주민총회' 성황리 열려	13
강원도민일보	20면	[의정칼럼] 역대급 세수펄크, 재정운영 전반 되돌아보아야	14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금강산 화암사 평화대법종 회향식 및 첫 타종	15

江原日報	12면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	15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심재국(왼쪽) 평창군수·최종수(평창) 도의원	1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최종수 도의원	15
강원도민일보	03면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16
강원도민일보	04면	돼지·닭·소 모두 당했다...도내 축산농가 감염병과의 사투	16
강원도민일보	05면	발생지역 소 사육농가 긴급백신 배정...공수의 부족 걸림돌	17
江原日報	01면	道 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 정부 관심 촉구	17
강원도민일보	02면	관동팔경의 백미 '삼척 죽서루' 도내 13번째 국보 된다	18
江原日報	06면	춘천·원주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졸업한다	18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소 렘피스킨병 백신 접종 빨라야	19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지역 자금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확산 일로 렘피스킨병,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급식종사자 대책위 출범, 교육당국 부끄럽지 않나	22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9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 성료 제14회 강릉시민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8일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시의장, 권영만 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30 ()

03

江原日報



“강원의정 화이팅”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가 지난 27일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열려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2023 10 30 ()

03

江原日報

“함께 달린 도의원·사무처 ... 의회 발전 원동력”

자치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 200여명 화합 다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한마음 체육행사를 열고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소통했다.

행사는 기획행정·사회문화·농림수산·경제산업·안전건설·교육팀 등 각 상임위원회 명칭을 인용한 6개 팀

으로 나눠 진행됐다. 족구, 피구, 과도타기, 장막 전략 줄다리기 등 협력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단체 게임이 이어졌다.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우승은 기획행정팀이 차지했다.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히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등이

찾아 응원을 더했다. 강원자치도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활용, 행사장을 찾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과 열의를 다해 지원해주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의 시간을 보내 뿌듯하게 생각한다. 즐거웠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해 의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2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2023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화합의 장’

종합우승 기획행정팀·준우승 교육팀

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2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2023년 한마음 체육

이날 행사는 6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팀을 이뤄 축구, 피구, 파도타기, 줄다리기 등을 겨뤘다. 올해 종합 우승은 기획행정팀, 준우승은 교육팀이 차

지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과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강의도 실시됐다.

권혁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과 열의를 다해 지원해주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설화 lofi@kado.net

매일일보

강원 특별 자치도의회, 2023년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황경근 기자

27일, 송암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



27일,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 체육행사(제공=도 의회)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송암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8명의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먼저,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구, 피구, 파도타기, 줄다리기 등 의원과 사무처 직원 상호 간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는 단체게임이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 명칭을 인용한 6개 팀(기획행정 팀, 사회문화 팀, 농림수산 팀, 경제산업 팀, 안전건설 팀, 교육 팀)으로 구성돼 경기가 진행됐다.

아울러, 본격적인 경기 시작에 앞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익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열의를 다해 지원해 주시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일상의 근심걱정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 10 30 ()

江原日報

11

성공적인 첫 선 ... 인파에 만두 동나

1회 원주 만두축제 성료 대표 음식 가능성 확인

【원주】만두의 재발견을 위한 제1회 원주 만두축제가 지난 28, 29일 전통시장과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새롭게 마련된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시는 원주 대표 음식

인 만두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만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제관, 판매장 및 음식 부스 등에서 각양각색의 만두를 즐겼고 몰려든 인파에 만두가 모두 매진되기도 했다. 만두 명인이 원주 특산물인 조엄고구마 즐거울 활

용해 만두 만들기 쿠킹쇼를 선보인 것을 비롯, 만두 빨리 먹기 및 빗기 등 만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열려 인기를 모았다. 만두를 먹으며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원주시 홍보대사인 조명섭과 이용, 소유미, 박상민, 윤수현, 문희옥, 서민영 등 가수들의 무

대와 함께 트로트쇼, 만두 방송국 등은 시민과 관광객의 흥을 돋웠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이재용 원주시의장 등 도·시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등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김설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8

원주 만두축제 '짜 찬 재미' 15만명 방문 흥행

쿠킹쇼·만두빨리먹기 이목집중 방문객 몰려 재료 조기소진도 한때 인파사고 우려 예방 총력

제1회 원주만두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만두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8일, 29일 원주시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10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강원김영국화 전시회 기간과 맞물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원주시는 만두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 15만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축제 첫날 예상보다 많은 인파에 오후 4시쯤부터 만두 판매 부스마다 준비해 온 재료가 모두 소진돼 더이



제1회 만두축제가 열린 지난 28일 중앙동 전통시장에 마련된 메인무대에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관광객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상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부리또만나 황은지 대표는 "만두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 넉넉히 재료를 준비했는데 일찍 소진됐다"며 "중앙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에 열린 고향명 만두 명인의 조엄 밭고구마 즐거울 활용만두 만들기 쿠킹쇼는 관광객의 시선

을 끌었다. 또 만두빨리먹기·만두빨리 빗기와 지역 가수들의 트로트쇼와 만두방송국, 즉석 노래방도 만두 축제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28일 오후 5시 식전행사로 열린 로드FC 계체량 측정 행사에는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었다. 행사 주최측은 원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의 협조를 얻어 관광객을 일방통행을 하도록 조치해서

고발생을 사전에 막았다. 같은날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원주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만두축제 개최 의의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원강수 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만두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해 준 관광객에게 36만 원주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만두는 일본, 중국, 홍콩을 비롯해 아메리칸들도 만두를 먹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 세계인들이 만두 축제를 즐기기 위해 원주로 오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경원주·재인천·재부천·재대구, 대전·세종강원특별자치도민회는 강원김영에서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일대에서 장을 보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원강수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기영



지방시대 강원으로부터 2023강원도 자치분권대회가 지난 27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실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영

“강원특자도 내실있는 법제화 중요”

**2023 강원 자치분권대회·포럼
분권·균형발전 강원선언 채택
이정현 부위원장 기조강연도**

대한민국자치분권을 주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포럼이 지난 27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이정현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김진하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일용도시군의회회장의 협의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

보회장, 원강수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등이 참석, 강원특별자치도의안착과발전을지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나갈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2023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선언’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단위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는 곳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민주화, 산업화를 거쳤지만 아직 부족한게 많다”며 “이제 도민들의 힘을 합쳐 자치 분권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석 회장은 “좋은 법과 제도가 주어져도 주민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기 어렵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를 내실있게 잘 채워나가고 도민의 내재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후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같은날 오후 진행된 2023 자치분권 포럼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와 지역발전 내실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기영

▶관련기사 16·17면

강원도민일보

‘지방시대 전략 수립’ 지방정부·의회 공동대응 다짐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포럼

특별법 개정 구체적 실현 방안 등 결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퍼포먼스 ‘특별한 강원인’ 릴레이 영상 상영도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법안의 실효적 법제 완비와 지방시대 내실화,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참석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고도화와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진하 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김일용 도 시군의회회장협의회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우 원주시의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고도화, 내실화 완성’,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방시대 실현’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을 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주체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퍼포먼스는 ‘특별한 강원도, 특별한 강원인’의 영상 메시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담은 ‘특별한’ 강원인들의 릴레이 영상이 상영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이뤄낸 성취와 보람을 상기해 3차 개정법안의 실효적 법제 완비와 지방 시대의 내실화, 고도화,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실행 △지방·강원시대 선도 △강원도민의 통합과 화합 구현 등을 다짐했다.

김진하 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단위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도민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하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힘찬 출발을 했지만 보완해야 할



지난 27일 원주 호텔인터파크에서 열린 202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서영

문제점이 많다”며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용 도 시군의회회장협의회장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자치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데 양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중심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3차 법 개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민의 의지 결집과 주민의식의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

다”며 “지방정부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학수 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강원랜드의 강원도 환원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황 위원장은 “강원랜드 설립 정신은 도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도민의 희생과 봉사, 헌신에 대해 중앙정부는 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강원랜드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돌려달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3 자치분권포럼 I 토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간 연합 유도, 사회적 편익비용 높여야”

- ◇좌장 = 박기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토론 =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계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경난 강릉시의회 의원



박기관 최승순 박재희 조계근 박경난

△최승순=“지방시대의 5대 전략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및 유연 거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박재희=“특례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을 통해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좋은 시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특례의 방향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제주 특례의 양에 맞춰나가기 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계근=“이번 정부의 핵심은 지방에 계획권을 주는 것이다.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농업, 군사 규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만 특별한 형태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수도권은 교통난,

집값, 범죄 등을 분석하고, 지방은 농촌의 소멸, 빈집 문제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박경난=“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들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거나 지방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율성은 책임성이 동반된다. 이에 지자체간 연합을 유도하고 사회적 통합과 연대성을 강화해 사회적 편익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기관=“지역이 자생력을 갖는 성장 동력을 주기 위해 지방이 설계한 것에 대해 중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목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기업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또 책임성 있는 자치분권이기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지만 18개 시·군, 영서, 영동 등 공간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기에 함께 나아가기 위한 지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촌 아우른 강원형 주민자치모델 있어야”

◇좌장=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토론=△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이공주 강원특자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조경숙 전 도주민자치회 수석회장 △원용대 원주시의원



이승진 이공주 조경숙 원용대 김길수

△조경숙=“강원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만 있지 일반 주민의 자치는 없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행정)와 주민자치(주민)가 균형을 맞춰 굴러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구체적인 내용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부분이 누락됐다. 도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전국의 주민자치와 확립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도시동과 농촌 읍·면에 따른 강원특자도형 주민자치모델이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에 의한 제도 확립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공주=“지방분권과 강원특자도는 절호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중앙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인가로, 이것이 3차 특례의 핵심이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3차 개정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례, 농촌산간지역비대면진료를 위한 첨단분야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 대도시 인정기준 특례도 필요하다. 기준을 인구 30만명 이상·면적 800km² 이상으로 완화하면 원주, 춘천, 강릉 3곳이 이를 충족, 3개 성장 거점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승진=“정부의 ‘4대 특구 전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투 트랙 접근이 중요하다. 특별법과 정부의 4대 특구 정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인

허가 관련 권한 이양에 주력된 특례의 초점을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맞춰야 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3대구역은 정부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별지원법을 가진 곳이다. 정부 설득 논리와 명분이 충분한 이 구역부터 투 트랙 전략인 4대 특구 정책 특구 선정 및 특례 우선 적용 추진을 제안한다.”

△원용대=“아직 강원특별법에 교육, 관광, 자치조직권, 재정·세제 특례 등 주민체감 핵심과제가 충분치 않다. 강원특자도 성공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특례 발굴이 절실하다. 반도체산업 육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등 원주 핵심특례 14건을 3차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조세 등 지원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은 집행기관만이 아닌 지방의회까지 확장되고, 광역(도) 권한도 기초(시·군)로 확대, 시·군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의 지원, 지역간 협력, 주민의 의견반영이 필요하다.”

△김길수=“오늘 토론자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둔 가운데 그간 주민자치에 대한 대표성, 정체성이 들어가지 못했다는데 공감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분야 특례,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숙제, 복수주소제 등 주신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토론 내용이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

정리/권혜민·정우진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3

오늘 특자도·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가 30일 오후 2시 춘천 KT&G 상상마당 나비홀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연다. 도와 교육청은 2024년도 재정여건·예

산편성 방향·주요사업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4~7일까지 4일간, 도교육청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11~13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무철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10 30 ()

03

도의회 예결특위 오늘 2024 예산안 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KT&G 상상마당 춘천 나비홀에서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도교육청 예산 관계관으로부터 내년도 재정 여건, 예산 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또 내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도의회는 오는 12월 4일부터 7

일간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나선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든 도민에게 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며 "올해와 내년 강원자치도 세수결손이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 10 27 ()

매일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황경근 기자

30일,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스튜디오(2층 나비홀)



이무철 의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춘천 KT&G 상상마당 나비 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관계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도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2024년도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년도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간 진행 될 예정으로, 이무철 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의 경기 대응적 측면을 고려하고, 모든 도민에게 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 결손이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3

국힘·민주도당 오늘 총선 대비 연석회의

여, 오색케이블카 등 영동공약 논의
야, 공천시스템·기획단 운영 공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30일 나란히 총선 대비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일편도심 총선거획단(단장 김길수)은 이날 오후 4시 속초당협 사무실(속초시 동해대로 보고빌딩 4층)에서 지역순회 연석회의를 열고 영동지역 총선 공약을 논의한다. 이 자리엔 윤광훈 속초·인제·고성·양양 당협 부위원장, 김시성·강정호·원미희 도의원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

카 설치사업, 태풍카눈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순회 연석회의는 영월과 원주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춘천도당사에서 지역위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김우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허영·전성·원창목·한호연·박상진·허필홍 지역위원장, 김철빈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총선 공천 심사 및 경선 주요내용, 총선거획단 운영 등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또, 최정목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이 총선 승리 방안을 제언한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 10 30 ()
23

강원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 성료

2,465명 선수단 열띤 경쟁 펼쳐

여성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에 도내 18개 시·군 2,465명(선수 1,635명, 임원 83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지난 28, 29일 이틀간 경쟁을 펼친 결과 철원군이 금메달 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2개로 가장 많은 33개의 메달을 차지했다. 횡성군과 양구군은 나란히 금메달 12개를 획득하며 금메달 개수 공동 1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양희구 도체육회장과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흥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김정수·엄기호 도의원, 원홍식 도 체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현종 군수와 임대수 철원군체육회장, 이용탁 철원군 문화체육과장 등은 감사패 및 공로패를 받았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대회가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 여성 생활체육인 화합에 도움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희구 회장은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대회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찬·김대호기자

江原日報

2023 10 30 ()

14



삼척 인의예지림 준공식 삼척 도심 속 힐링공간인 인의예지림 준공식이 지난 28일 이철규 국회의원, 박상수 시장, 조성운·심영곤 도의원, 삼척향교 유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0 30 ()

14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9



흥제동민 건강검기대회 제2회 강릉시 흥제동민 건강검기대회가 29일 남대천 둔치에서 김종욱 강릉시부시장, 심오섭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김현수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7회 백두대간 산삼심기 행사가 지난 28일 무릉계곡 일원에서 열렸다.

동해 백두대간 산삼심기 성황

【동해】제27회 백두대간 산삼심기 행사가 지난 28일 무릉계곡 일원에서 열렸다.

(사)백두대간보전회, Eco-백두대간2+운동이 주관하고 동해시, 한라시멘트, 동부지방산림청 등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 식물자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복 (사)백두대간보전회장, 이철규 국회의원,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

호 동해시의장, 김기하 도의원, 정동수·안성준 동해시의원,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 김종곤 NH농협 동해시지부장, 한호연 더불어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개회식, 백두대간보전회 유공자 표창, '희망의 씨앗' 풍선 날리기, 산삼심기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명특기자

2023 10 30 ()

강원도민일보

12

산사랑 흥천사랑 등산대회 남산서 주민 화합

본지·군산악연맹 주최 5km코스
광역철도 조기착공 퍼포먼스
“지역속원 공동 염원 뜻 깊어”



‘2023 산사랑 흥천사랑 등산대회’가 29일 흥천 남산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 최대의 산림을 품고 있는, 흥천 남산에서 등산대회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성공 개최됐다. ‘2023 산사랑 흥천사랑 등산대회’가 29일 남산주차장에서 오흥수 부군수, 이영욱·홍성기도의원, 박영록 군의장, 최이경 군부의장, 윤준식·이광재·김광수·황경화 군의원, 박주선 문화위원장, 신재영 군체육회 부회장, 허필홍 민주당 흥천형성영 월평창 지역위원장, 김진우 군산악연맹 회장, 허남우 강원도민일보사

흥천지사장,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역 속원사업인 용문~흥천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기분 좋은 산행을 즐겼다.

강원도민일보사와 흥천군산악연맹이 주최하고 흥천군, 군의회, 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등산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돼 사전 참가 문의가 잇따르는 등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기념품이 참여자들에게 제공돼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으며 하산 후 경품 추첨이 이어져 산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흥천남산은 413m로 그리 높지 않고 쉽터 등 길이 잘 정비돼 있어 평소

에도 지역주민들의 ‘최애’ 산으로 많은 이들이 사시사철 찾고 있다. 총 5km 코스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흥천군산악연맹 회원들이 등산코스 안내, 참가자 기념품 배부 등 행사장 곳곳에서 등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 참여자들의 안전한 산행을 도왔다. 오흥수 부군수는 “단풍 등 가을 산행에 지역속원사업인 용문~흥천 철도 조기착공을 주민들과 함께 기원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박영록 군의장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아 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등산대회를 통해 삶의 여유와 건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현 yoosh@kado.net

江原日報

2023 10 30 ()

21

“불안정한 국제정세 딛고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

민족통일대회·문화제전 시상

임예준·김하은 학생 등 수상 영예
유공자 표창장·황인태 소장 특강

2023민족통일강원특별자치도대회 및 제54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이 지난 27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제1부 통일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제2부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주제로 황인태 국제평화연구소장의 통일교육강연이 이어졌다.

본 행사인 제3부에서는 유장수 동해시협의회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기수단 입장, 시상식 등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한민족통일문화제전 강원 지역 수상자인 임예준(원주 삼육초교 6년·통일부장관상), 김하은(춘천여



◇2023민족통일강원특별자치도대회 및 제54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이 지난 27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고 3년·대한적십자사회장상) 등과 2023 통일유공 수상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객원근 민족통일 중

앙협의회 의장, 이귀인 도협의회장, 유장수 동해시협의회장 등 민족통일 관계자, 심규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김기하 도의원, 민귀희·정

동수·안성준·김향정 시의원, 박광서 동해교육장,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귀인 도협의회장은 “이 행사가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평화 통일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규인 동해시장은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선물”이라며 “지난 42년간 민족통일 회원 여러분이 해 온 활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객원근 중앙협의회 의장은 “국내외 정세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순조롭지 않다”며 “앞으로는 일상에서 하는 통일활동 등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전명복기자

江原日報

2023 10 30 ()

01

‘시니어산업 1번지’ 성장 가능성 입증한 강원자치도

‘강원 시니어산업 박람회’ 성료

실버산업 연계 다양한 부스 눈길
강원 대표 ‘시니어 축제’ 새 지평

‘2023 강원 시니어산업 박람회’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관람객의 꾸준한 발길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지난 27~29일 사흘간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진 이번 박람회에는 70여개의 다양한 부스와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군 홍보부스가 마련돼 국내 시니어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2·7면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과 웰빙, 여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부스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꾸민 메인 부스인 주제관을 비롯해, 레저라이프관과 바이오헬스관, 밸런스체험관, 뷰티에코관 등 실버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람회 기간 메인무대에서는 ‘강원 시니어 문학상’ 시상식과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가 각각 열려 강원 대표 시니어 축제로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바이오, 헬스산업이 있는 강원자치도는 시니어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에 충분

하다. 강원 시니어산업 박람회가 해마다 누적된다면 시니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의 강점 중 하나인 의료기기산업을 시니어산업과 접목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이번 박람회는 시니어 세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니어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100세 시대에 발맞춰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7일 개막식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박윤미 도의원, 이재용 원주시의원, 나윤선·김혁성 원주시의원,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김성래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강원지회장, 박동언 강원경영자총연합회장, 유종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장, 정동기 원주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허남윤기자

江原日報

2023 10 30 ()

10

홍천농업고 총동창회

회기별 체육대회 개최

【홍천】홍천농업고 총동창회는 지난 28일 학교 운동장에서 제45회 회기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김광수·이광재·황경화 홍천군의원, 노승철·노승락 전 군수, 민병하 홍천농업고 교장, 엄광남 홍천농업고 총동창회장 등을 비롯해 동문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체육행사와 함께 공로패·감사패 전달, 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 경품행사 등이 진행됐다.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등 3명은 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기탁하기도 했다. 허위윤기자

2023 10 29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강릉시 교1동 주민자치회 '제3회 주민총회' 성황리 열려

황미정 기자



강릉시 교1동 주민자치회(회장, 권오철)는 지난 28일, 교1동 소재 솔을 공연장에서 주민 500여 분을 모시고 '제3회 교1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심오섭 도의원, 윤희주, 최익순, 김현수 시의원 등 지역구 의원이 참석하여 세 번째 열리는 교1동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오철 회장은 “주민이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황미정 기자 gwnews@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20



의정칼럼

이무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역대급 세수펄크, 재정운영 전반 되돌아보아야

올해 국세 수입이 연초 대비 59조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수 또한 연초 대비 4700억원 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이는 전례없는 세수결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세 펄크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수감소로 강원자치도의 자체수입도 줄어드는 이중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자치도의 경우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례없는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연초 대비 정부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에 따라 우리 도의 지방교부세 추계 또한 변동됐고, 강원자치도의 연초 대비 경기예측의 오차 발생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추계 변동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최근 3년

*경기 대응 위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가지 않아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약화
사업 옥석가리는 해안 기르고
긴요한 사업 발굴하는 안목
기르는 계기로 만들어야*

간 당초예산과 결산상 세입을 비교해 보면, 매년 평균 약 214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세입평균이 약 1조 603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당초예산 대비 약 13%의 세수추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세수추계 차이가 자주 발생하면, 경기 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 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올해와 같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 (과다추계)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예

산배정 유보, 이월, 불용, 집행보류 등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감액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경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정의 경기대응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반대로 예년처럼,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도 (과소추계) 문제다. 더 걷힌 세수만큼 재정을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초과세수가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세수를 정확히 맞출 수 없겠지만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거 데이터에 기초해 작성되고 있는 현행 세수추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 예측에 기반해 경기전망을 일부 보정한 세입추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의 보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그간의 재정확장운용으로 발생한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도

정을 통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재정확장이 이뤄졌다. 때로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현재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지난 도정의 만성적 재정적자의 문제해결과 부채축소를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준칙 준수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녹록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해안을 기르고, 긴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수 부족에 따른 도민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분배에 있어서 어느 한 집단의 의견만 반영하거나 편향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세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미래 경기예측에 기반한 보다 정교한 세입추계 시스템 확립과 효율성, 공정성을 감안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3 10 29 ()

강원도민일보

금강산 화암사 평화대법종 회향식 및 첫 타종

지산

고성 금강산 화암사(주지 대현스님)에서 29일 평화대법종 회향식이 지승섭 부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불자 및 사부대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평화대법종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두의 귓가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 고성 금강산 화암사(주지 대현스님)에서 29일 평화대법종 회향식이 지승섭 부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불자 및 사부대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평화대법종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두의 귓가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jisan@kado.net

江原日報

2023 10 30 ()

12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 '대관령 옛길 걷기 체험행사'가 지난 28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주차장 대관령옛길 주막터 일원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13

인의날 행사에 참석한다.



심재국(왼쪽) 평창군수·최종수(평창) 도의원은 30일 오전 11시 평창군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에서 열리는 2023 평창군 농업

江原日報

2023 10 29 ()

[동정] 최종수 도의원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30일 오전 11시 평창군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에서 열리는 2023 평창군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3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회발전특구 설계·운영 자율화
자치입법권 국가 관여 '최소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구축도

자치분권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맞아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들은 지난 27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자치조직원 확충 △기회발전특구 조성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조직원 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국장급한시 기구설치시행안부와 시·도 협의권 폐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의견을 모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非)수도권 및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의 신규 입지·기

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가 대상이다. 광역시는 150만평(4.96km²), 도는 200만평(6.6km²) 규모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을 협업을 통해 법률 82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재정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시범지역인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성과를 공유한 뒤 오는 2025년 전체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시에 지방의 일, 삶 및 여가·문화 등을 끌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타당성을 심의·평가한 뒤 재원을 확보하고,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지역균형을 언급하는데 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남궁형성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04

돼지·닭·소 모두 당했다...도내 축산농가 감염병과의 사투

AI·구제역 발생 예측불가 '불안'
도내 ASF 확진 양돈농가 4곳
양구·횡성 등 렘피스킨병 속출
급속 확산·방역방안 마련 난항

강원도 전역이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도내 4곳의 양돈농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확진된 가운데 최근에는 렘피스킨병에 감염된 도내 한우농가까지 속출, 도 전역이 가축감염병 공포에 빠져들었다.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강원도 축산농가에 직격탄을 입혔던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다시 ASF와 렘피스킨으로 이어지며 한우와 양돈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강원지역에 1종 가축전염병인 렘피스킨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29일 춘천시 거점소독시설과 축산농가를 찾아 현장 방역을 점검했다.

▶ASF 강원도내에서는 지난 1월 철원에서 올해 첫 ASF 농장 내 확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의 ASF 농장 내 확진이 확인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건의 양돈농장 내 ASF가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건이 도내에

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도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역인 철원군에서 ASF가 두 차례나 확인됐고 지난 2월에는 기존 양돈농장 확진이 한 건도 없었던 양양군 소재 농장이 확진되기도 했다. 이로써 도내 양돈농가 ASF 발생 건

수는 총 16건으로 늘었다. ▶AI·구제역 고병원성 AI의 경우 2021년 원주시 귀래면 소재 산란계 농장과 2022년 원주시 봉산동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AI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양계농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2015년 초 11건이 발생한 이후 약 8년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 주사를 100% 실시, 구제역 발생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렘피스킨 구제역이 잠잠해지자 국내 발생이 없던 렘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지 3일 만인 지난 23일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 첫 렘피스킨병 확진이 발생했다. 이후이틀 뒤 도내 최대 한우사육지

역인 횡성군에 이어 다시 양구, 고성군까지 퍼져나갔다. 어디서 어떻게 확진되는지도 알 수 없는 가축감염병은 도내 양돈 농가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렘피스킨병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이므로 확산도 빠르고 다른 가축 질병이랑 방역하는 방법도 달라 농가 입장에서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연수 강원대수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렘피스킨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서 백신 접종 후 확산세가 안정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감염농가에 대한 역학조사와 앞으로의 전파 양상을 예측해 미리 렘피스킨병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kimjho@kado.net

강원도민일보

05

발생지역 소 사육농가 긴급백신 배정...공수의 부족 걸림돌

<공중방역수의사>

럼피스킨병 도내 총4건 발생

강원도내 곳곳 럼피스킨병 확진이 이어지자 각 시·군에서도 차단방역과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은 정부가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열흘만인 29일 오후 2시 기준 충남·경기·인천·충북·강원·전북에 이어 전남까지 총 6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양구 2건, 횡성 1건, 고성 1건이 발생해 총 123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 확산 저지 총력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29일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하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도 방역당국 역시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 2일까지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미확진 농가 접종·차단방역 사항 방역당국 내달 2일까지 완료 예정

일부지역 타시·군 지원요청 계획

강원도에 배정된 백신 분량은 28만 1000여마리가 접종 가능한 분량으로 도내 시군으로 백신을 배분해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가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횡성군의 경우 지난 26일 우천면 농가 확진 이후 약 3만 1000마리에게 접종이 가능한 수량의 백신을 전달받아 읍면사무소를 통해 백신을 배정했다. 또한 29일 새벽 4시 31650마리 분량의 백신을 추가로 배정 받아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가 6만 2056마리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배정 받은 백신으로 지역내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접종하는 것이 어렵거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중방역수의사 8명을 배치해 접종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진된 농가가 없는 시군의 경우 백신 접종과 더불어 차단방역도 철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가운데 29일 춘천 강원대학교 부속목장에서 관계자가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양구군과 횡성군, 고성군 등에서 총 4건의 럼피스킨병이 확진됐다. 김정호

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과 인접한 원주시의 경우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해충 구제제를 구입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1명 접종도 말아...공수의 공급난항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걸림돌은 공수의 부족 문제다. 특히 럼피스킨병 백신은 손쉽게 놓는 근육 주사 방식이 아닌 소

의 가축 충을 들어 올려 피하지방에 주사를 놔야 해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 2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양구군의 경우 공수의 3명 중 2명이 럼피스킨병 확진 소를 검진했기 때문에 방역에는 참여할 수 없어 1명이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천군 역시 백신접종반 6개를 구성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50마리 이상 농가의 경우 접종 경험도 많고 접종 방법도 안내고 있다"며 "일단 1명의 공수의가 최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타 시군에서 공수의를 지원 받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01

道 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 정부 관심 촉구

김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윤 대통령에 강력 요청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27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지사는 먼저, 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오색케이블카가 연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2개의 인허가 및 심의절차 중 11개를 이행해 1개의 절차만을 남겨두었고,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중앙부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미래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사람이 모이니, 미래산업 유치가 곧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열쇠"라며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입지적으로 용인과 30분대 교통망이 구축돼 있는 점, 전날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가진 점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그간의 성과를 덧붙여 역설했다.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예정돼 있는 산자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관련해서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의 경우 춘천 체외진단, 원주 정밀의료, 홍천 국가항체, 강릉 천연물, 평창 그린바이오로 이미 바이오헬스 5대 벨트가 구축돼 집중 육성 중인 점을 피력했다.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을 잘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는 윤 대통령 이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각 부처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과 전국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2023 10 30 ()
02

강원도민일보

관동팔경의 백미 '삼척 죽서루' 도내 13번째 국보 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내달 확정
풍경·공간 조화로운 건축 양식
조선시대 시기별 특징 담겨



관동팔경의 백미(白眉)로 평가받는 한국 대표 누정 건축물인 삼척 죽서루(보물 제213호)가 도내 13번째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삼척 죽서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로는 지난 1962년 지정된 강릉 임영관 삼문 이후 60년 만이다. 누(樓)란 문과 벽 없이 사방이 트고 마루를 한층 높여 지은 다락형식의 건축물이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대 활동했던 김극기(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

문화재청은 최근 관동팔경의 백미로 손꼽히는 삼척 죽서루(보물 제213호)에 대해 국보로 지정할 것을 예고해 지역내 환영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으로 미뤄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 창건됐으며, 안축(1282~1348)과 정주(1333~1382) 등의 시를 통해 처음에 서루(西樓)로 불리다가 14세기 후반에 들어 죽서루(竹西樓)로 불리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누정 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은 "1403년 중양 5칸(측면 2칸) 규모로 중창되고 1530년 남측한칸(측면 3칸), 1788년 북측한칸(측면 2칸)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팔각지붕(맞배지붕 옆에 삼각형의 합각을 남기고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지붕) 형태가 됐다"며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양 5칸과 조선 중기 이후 확장된 좌·우측 1칸은 기둥 배열,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삼척 죽서루 국보 지정 예고는 3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쯤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강원민 koo@kado.net
▶ 관련기사 11면

2023 10 30 ()
06

江原日報

춘천·원주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졸업한다

강원자치도, 정부에 지정해제 요청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3개 기업 유치·100명 고용 성과... 인공지능 의료산업 탄력

2021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춘천·원주 정밀의료특구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특구 지정 후 2년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상당수를 완화했으며 기업·투자 유치, 신규 고용 등 목표를 이미 달성해 '졸업'하는 개념이다.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기간은 다음 달 30일 만료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도는 특구 지정을 해제해 실증을 종료하고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노린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성과를 낸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원형 인공지능 의료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밀의료특구는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전립선암 예측, 뇌손상 치료전략 예측, 안면골 골절 진단 등 4가지 질환에 대해 의료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됐다. 현행법상 활용이 불가능한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 로그 데이터, 병원 임상정보 등을 취합, 분석해 질병 발생 시 개인별로 맞춤형 진료·치료서비스를 만든다. 인체유래물과 생활습관 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례, 의료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 및 영상정보를 개인 정보 식별 위험을 최소화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부여됐다. 기존 법에는 이 같은 행위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실상 막혀있었다.
하지만 특구 실증 진행과정에서 규제 완화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는 지난해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다. 정밀의료 특구 성과가 전국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진 것이다. 또 2년간의 실증 기간 3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는 20억원을 이끌어 내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 21

소 럽피스킨병 백신 접종 빨라야

-3개군 잇따라 확진 생산성 저하...조기 신고 대응 철저하게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럽피스킨병이 번지면서 사육농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럽피스킨병에 감염된 소는 10월 24일 양구 국토정중앙면을 시작으로 25일 횡성, 28일 양구 해안면, 29일 고성에서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횡성 발생농가 사육우는 전부 매몰됐고, 횡성축협 한우가공품 홍콩 수출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지역 내 한우와 젓소 이동 제한 조치 및 가축경매시장 잠정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1종 가축전염병이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주요 질병으로 규정된 소 럽피스킨병은 고열에 사지 부종이 생기면서 감염우가 움직이기 싫어하고 각막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피부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및 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이므로 농가에서는 증상 유무를 상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증상이나 의심 질병이 발견될 경우엔 곧바로 신고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선 조치돼야 할 것입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나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 및 감염된 동물과 음수 섭취를 함께할 때, 정액 등이 주요 감염원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사육농가에서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다 보니 확산 속도도 빠르고, 방역 방법도 다른 가축과 달라고 층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시군 및 축협 등 관계 기관에서는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질병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기 신고 및 적합하게 방역에 대처하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축질병은 축산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피해를 부르는 큰 요인이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안이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바이러스의 기계적인 전파 기회가 늘고 전 지구적 유통망으로 인해 가축 질병에 안전지대는 없게 된 만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축연령에 따라 질병에 격차가 있고, 한우와 젓소 등 품종에 따른 차이도 있는 만큼 세분화 특성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소 럽피스킨병뿐만 아니라 최근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그리고 2019년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는 등 축산분야에 막대한 손실을 불렀습니다. 긴밀한 민관 협력에 의한 적시 대처로 차단에 효과를 내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0 ()

/ 21

지역 자금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역외유출심각, 지역내 투자환경 조성 급선무

강원지역자금역외유출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지역 내에서 흘러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지역의 금융 주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금유출은 지역 업체의 영세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도내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금유출비율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지역 금융기관 자금역외 유출 비율은 28.57%로 전국 평균(-1.1%)을 크게 상회했고, 지역별로는 세종(28.61%)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자금역외유출은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도내에 대출금으로 머물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지역의 자금유출은 대출 수요가 적은 산업구조, 영세한 기업 규모, 자금공급에 소극적인 일부 금융기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금유출의 악순환은 원주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6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수

신취급점이 서울에서 원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및 공공행정 서비스기업의 대규모 잉여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수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도내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 대출은 전국 시도 평균수준을 대폭 하회해 해당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지역내 대출로 쓰이지 않고 타시도로 유출돼 역외자금 유출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내 자금 선순환 구조는 한 가지 처방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유출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다각적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우선 향토기업의 경영을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유치단계부터 강원 도내에 본사를 두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기업대출 노력도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원도의 금융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향토은행 설립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자치도 4대 부문 규제 완화를 적극 활용해 금융기관의 역내대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江原日報

2023 10 30 ()

/ 19

확산일로 렘피스킨병,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소 바이러스 질병인 렘피스킨병이 확산 일로에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4일 양구에 도내 첫 렘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이틀 만에 26일 황성군 우천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1마리가 렘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양구, 고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추가 발견됐다. 불과 닷새 만에 총 4건의 확진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방역 인력을 투입하고 이동 제한, 집중소독, 긴급 정밀검사,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렘피스킨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도내 축산농가에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충북,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추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뜰이나 치솟는 인건비와 사료 값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자식 같은 소를 무더기로 살처분하면서 축산농가를 비롯, 주민, 공무원들이 겪었던 '구제역 트라우마'의 기억이 떠오른다. 특히 이번 렘피스킨병은 방역 당국이나 농가가 모두 처음 경험하는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렘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렘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중국 등을 거쳐 지난달

국내로 유입됐는데 신고가 늦어져 검사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당국은 전염병 유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축산농가들도 협조해야 한다. 우선 사육소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감염 의심 개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견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렘피스킨병이 발병된 곳은 외부인

충북,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으로 퍼져

사람·차량 이동 많은 가을 축제장 잘 살펴야

살처분 따른 지하수 등 오염 대책 마련도

출입을 엄격히 막고, 출입 시에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장 내부에 살충제를 뿌리고 주변도 소독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가축전염병은 겨울뿐 아니라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적인 방역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가을 축제장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 소독과 예방백신 접종, 가축 이동 통제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가축 살처분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 매몰 처분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장주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江原日報

2023 10 30 ()

/ 19

급식종사자 대책위 출범, 교육당국 부끄럽지 않나

노동계, 교육계, 정당,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방지 강원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종사자 1,758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사자의 31%에 해당하는 542명이 폐암 관련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5년간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4명이 산업재해로 승인됐다. 1명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가 정부와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급식실은 여전히 급식노동 대체인력 부족, 조리시설 개선 등이 미진해 노동자들의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학교 조리실은 ‘죽음의 급식실’로 불린다. 급식노동자들이 열악한 조리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주부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그 원인으로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흡이 지목됐다. 하루마다 매일 많은 양을 조리하는 급식종사자들은 얼마나 폐 건강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겠는가. 실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은 일반 여성의 폐암 발병률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찜통 조리실, 환기시설 부족으로 조리사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급식 조리실의 취약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 왔다.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조리실 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리실 시설 개선 사업을 약속했지만 지원 수준이 기존 시설 유지에 그쳐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밥을 위해 ‘죽음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조리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근무 환경을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조리 환경의 높은 폐암 유병률이 확인된 만큼 도내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조리실 기준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급식 인력 등 교육공무직 인력 증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작업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 당국의 의무다. 예산 타령이 아니라 실질 끝 문제가 아니다. 서둘러 주기 바란다.